



#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에 끝없이 충실한 당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금 우리 조국 땅에서는 주체년호로 빛나는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아버지수령님의 넘내대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일대 공적전진에 힘차게 벌여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은 우리 당과 혁명, 조국번영의 백승의 기치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에는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자랑찬 력사, 주체혁명위업의 장창한 미래가 비껴있다.

우리 당의 력사는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모든 념원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며 우리 조국은 김일성조선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 1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는 당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의 혁명과 건설은 우리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투쟁입니다.》

혁명은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이며 수령의 사상과 로선은 당과 혁명의 영원한 피휘자이다. 수령의 유훈에 충실하는 것은 당이 수령의 뜻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당이다.

수령의 뜻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환경과 조건은 변할수 있어도 수령의 유훈이 담고있는 사상과 뜻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수령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사소한 담보도 있을수 없다.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대혁명승리의 합법적성이 있고 당의 위대성이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당으로 존엄을 떨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 10여년동안 혁명의 수령을 어떤 자와도 립장을 가지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의 유훈을 어떻게 지키고 빛내어나가는가 하는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였다. 수령의 사상과 업적이 영원불멸하고 수령이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이 력사상 처음으로 밝힌 수령영생의 혁명적본질이다.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자가 있었기에 아버지수령님을 주체의 대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성취되게 되었고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이 전당적인 총공적전, 전국가적인 총동원전, 전인민적인 총결사전으로 줄기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며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적전을 승리에로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소집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전투적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당의 강령적지침으로 뚜렷이 내세운 우리 당의 위대성은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한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해나가고있다. 혁명적당의 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은 당을 장전하고 이끌어온 수령의 당건설사상의 영원한 생명력에 원천을 두고있다.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력사는 아버지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영원불멸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조해 바쳐 마련하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초석으로 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우리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되고있다.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과 의도로도 당대렬의 정예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민심을 일심단결의 천하지배로 여기며 당의 균중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져나가고있는 혁명적당이 바로 우리 당이다.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신대로, 이것이 오늘의 대고조전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드림없는 신조이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천백배로 다져지고 전당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전위대로 강화된 여기에 아버지수령님의 당건설유훈관철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가 있고 신조선의 우리 당의 참모습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된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오늘의 총공적전에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적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우리 당의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처럼 원대한 뜻과 리상, 든든한 배심과 필승의 신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공격정신과 혁명방식이 차면치고있다. 모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의지대로 해나가는 우리 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실현하는것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하자면 목표가 높고 뚜렷해야 하며 그 목표는 수령의 리상이다. 수령의 부강조국건설사상과 념원은 당의 성스러운 투쟁강령이고 혁명승리의 표대이다.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는것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해나가는 당만이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로로 전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에는 천리해안의 예지를 지나시고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수십성상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신 선견지명이 비껴있다. 우리 수령님의 강국건설구상은 폭넓고 깊은 뜻을 담고있으며 조국과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령도자 중심적이고 인위도가 많은 나라를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야 한다는것은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남기실수 있는 유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우리 당의 위력한 선군정치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며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도 수령님의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필승의 기치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있는 우리 조국이 핵보유국, 인공위성제작발사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서게 된것은 아버지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최고의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우리 당만이 이룩할수 있는 불멸의 공적이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고 천만군민의 총공적력을 이끌어 나가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이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아버지수령님께서 달고기 가진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행복을 다 안겨주고 주체의 사회주의의 총공적력을 이끌어 나가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이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아버지수령님께서 달고기 가진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행복을 다 안겨주고 주체의 사회주의의 총공적력을 이끌어 나가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이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아버지수령님께서 달고기 가진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행복을 다 안겨주고 주체의 사회주의의 총공적력을 이끌어 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원칙적으로 인민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수령의 력사와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것은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원들을 가지고있다. 이런 당원들과 인민들의 투쟁정신은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혁명적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다. 우리는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고된 정치적생활을 받아안고 참다운 현실은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우리 당의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처럼 원대한 뜻과 리상, 든든한 배심과 필승의 신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공격정신과 혁명방식이 차면치고있다. 모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의지대로 해나가는 우리 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실현하는것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하자면 목표가 높고 뚜렷해야 하며 그 목표는 수령의 리상이다. 수령의 부강조국건설사상과 념원은 당의 성스러운 투쟁강령이고 혁명승리의 표대이다.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는것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해나가는 당만이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아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길에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 오늘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런 숭고한 삶과 투쟁의 좌우명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은 마땅히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기어이 해내고야하는 불굴의 기질, 무엇을 하나 창조해나갈수 있게 할수 있는 혁명적본성으로 대고조시대의 순간순간을 빛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해나가고있는 위대한 당, 수령의 영원한 후손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간직하고있는 천만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기에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은 빛나는 현실로 펼쳐날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당의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2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는것은 회색의 검출한 령도자를 지니고있는 것이 모시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구상을 펼치고 전당, 전군, 전민이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에 의하여 수령의 한평생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가 제시되고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령도자의 역할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높아지게 된다. 혁명의 전진은 세대교체를 동반한다. 새로운 세대들이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의 위대성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하는것이 혁명의 장래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력사와 현실을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혁명에서만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승리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령도자를 진두에 높이 모시어 수령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계에 떨쳐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 조국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전민적으로 꽃피워나가는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조국은 수령님의 뜻대로 강성대국을 실현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이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오늘 조국땅에서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가 펼쳐진것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성은 대를 이어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이 확고히 보장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수령님의 유훈은 우리 당의 강령과 같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의 확고부동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의 령도체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로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령도체계이며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령도체계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전당이 사상순결체, 조직적일체, 행동의 통일체를 이룬 여기에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비결이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당의 유일적령도체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한 모든 문제들이 당중앙에 집중되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념원은 당의 결정, 지시에 따라 빛나게 실현되어나가고있다. 전당과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총동원되어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기류, 당정책을 지상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집행해나가는 결사관철의 기풍,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뜻없이 계승완성해나가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긍지높은 모습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조선로동당이 향도하는 우리 혁명에서는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중대반전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 오직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해나가는 거창한 투쟁과 승리가 있을뿐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을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는 강성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은 당이다.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수령의 유훈은 불패의 정치군사력과 함께 강력한 국가경력이며 마땅히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후손대대의 행복과 미래를 개척해나갈수 있는 만년기쁨을 마련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당만이 이룩할수 있는 민족사적업적으로 된다.

우리 당의 력사에서 지난 10여년간은 아버지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민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토대를 억척같이 다져온 세기적변혁의 나날이었다.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던 이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개척하시고 용이 큰 작전과 비상한 혁명적전격력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경이적인 사면들을 안아오시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현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걸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일꾼들이 혁명의 총총기가 되어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관철의 선봉, 비약과 혁신의 기상으로 천만대중의 심장이 불타오르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총정지의 자욱은 대고조령도실록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선군조선에서는 인민생활향상과 강성

대국건설투쟁에서 놀라운 기적과 변혁이 이룩되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주체철, 주체세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있다.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도처에 신조선대의 희한한 선경들이 펼쳐지고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고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며 최첨단들과 과학기술선봉들이 편이어서 이룩되고있다. 수령의 념내대로 민족단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다져지고있는 오늘의 거창한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지금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을 각방으로 방해하려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제재, 봉쇄책동은 끈질기게 감행되고있다. 그러나 백두의 권총명장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땅에서는 앞으로도 세계를 놀래우는 거창한 인민들이 편이어서 이룩될것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유훈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충직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가지고있는 불패의 당이다.

당은 수령의 혁명위업수행의 향도자이며 인민은 그 투쟁의 주체적력량이다.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총동원되어 있을 때 수령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는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게 된다.

아버이수령님의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위한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면위천의 사상은 우리 당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위한 좌우명으로서 빛나고있다.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에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여나간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삶과 투쟁의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고있다. 수령의 뜻대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의 혈연적유대가 백방으로 강화되고있는것은 선군조선에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이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당이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린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추켜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 김철에 지닌 인민생활향상대건설의 불꽃이 온 나라에 총공적전의 활화산으로 거세차게 폭발하고있는것은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열화와 같은 총정도로 만드는 가장 공고한 혁명적단결에 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한길에서 당과 군대와 인민이 불패의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기에 오늘의 대고조전군에서 승리는 확정적이다.

조선로동당이 세기를 이어 빛내어나가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존함은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며 수령님의 유훈은 강성대국건설의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은 반드시 위대한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이다.

김 홍 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불같은 결의안고 래양의 성지를 찾은 당사자들 - 백두산일영혁명전적지에서 -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염주고려악공장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통한 교양 활발

령도업적을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독보와 해설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도서들과 당보의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일꾼

들이 들뜬 생선현장에 내려가 화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대중을 올해 공동사업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적극 떠밀어주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두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곳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더 많은 고려약을 생산할 불타는 맹세를 안고 말은 일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하나의 제품을 보시고도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상업부문의 어느 한 섬유제품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신 그이를 뵈옵는 순간 오장그원들의 가슴속에는 이룰수 없는 감격의 물결이 일렁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당 부분 전문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200일전투가 맹렬히 벌어지고있는 때여서 긴급한 과업을 주실것이라고 생각하며 일꾼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4월 어느날이었다. 이날도 바쁜 시간을 보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일꾼을 부르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200일전투가 맹렬히 벌어지고있는 때여서 긴급한 과업을 주실것이라고 생각하며 일꾼은

그러시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옷을 해입히느냐에 좋겠다며 대대여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한가지 색다른 옷이나 새로운 질의 옷을 보시어도 우리 인민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라고 갖가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기쁨에 겨워 거리에 나설 그들의 행복찬 모습을 그러시며 그날을 앞당길 마음으로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장군님.

옷깃본을 가지고 경영부

의 삼점체에 단추를 파는 것이 얼마 없는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단추공장에 만부하를 걸어 평양시안의 삼점체에서 단추를 떨구지 않고 팔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두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곳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더 많은 고려약을 생산할 불타는 맹세를 안고 말은 일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혁

##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신의 길에서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공동사설에서)

## 협동벌에 메아리치는 총공세의 산울림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운동전선에 들어온 소식이 사막같은 가슴을 격정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새해에 들어와 수만 t의 거름을 생산!

전례없는 성과이다. 바로 여기에는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업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올해에 기어올라오는 운전별안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의 열정이 깃들여져 있다. 운전별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인민생활상대전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신심에 넘친 모습을 볼 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온 벌이 끊고있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운전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꾼의 방에서 여대령의 일꾼들이 모여앉아 올해전투목표를 세우고있었다.

공동사설이 실린 담보를 절

친든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신심이 넘쳐있었다. 공동사설의 요구대로 당정책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실천가가 되었다고,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는 일꾼들을 바라보며 책임일꾼은 목표를 더 높이 세울 결심을 굳혔다.

이미 추진중에 있는 하천정리 1월중으로 완전히 끝내는 문제, 우렁이에 의한 논벼비배관리문제를 지난해에 비해 더욱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일꾼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웠다. 또한 거름생산량을 획일적 내지는 것과 함께 농기계수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고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도출되었다.

근로인력의 대담한 작전과 전투적인 일본새로 하여 협동벌에는 총공세의 산울림이 메아리쳤다.

덕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보름동안에 해야 할 거름생산과제를 한주일동안에

수행하였고 대외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며칠동안에 많은 배양토를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근안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만물을 몰았다. 올해농사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결의를 하고 떨쳐나선 혁신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들은 거름생산과 농기계수리에 헌신의 구슬땀을 바쳤다.

자연은 이들의 의지를 시험하더라도 하듯 더욱 기세를 부렸다. 눈을 뜰 수 없게 몰아치는 보얀 회오리바람과 눈보라, 순식간에 모든것을 없애는 맹한 추위...

하지만 농장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왔다는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자연의 광란을 맞받아나갔다. 이들은 새해 첫 전투부터 포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매일 같은 거름을 생산하고 농기계들을 수리정비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런 전투적인 일본새가 어찌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속에서만 발휘되었는가.

농장원들은 잡도리를 든 듯하고 분발해나갔다.

송학협동농장의 일꾼들은 거름생산전투를 힘차게 벌여지고 있는 현장에 나가 조직사업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였다.

협의회도 현장에서, 전투조직과 총화도 현장에서 하였다. 이곳 농장원들은 올해에 기어올라오는 운전별의 열기를 감당하기 위하여 애국의 땀을 바쳤다.

운전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거름생산에서 매일 혁신을 일으켰다.

새해 정초부터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운전별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투쟁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대고조시대 인간들은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안고 갔다.

협동벌에 메아리치는 총공세의 산울림, 그것은 농업전선을 지켜선 궁지없는 이 땅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을 안아주기 위한 인민생활상대전선의 열정을 함축하고 있는 열정의 분출인 것이다.

총공세의 산울림과 함께 올해에 운전별에는 반드시 풍년농작물이 울려 퍼질 것이다.

## 현실속에 들어가는 방도가 나온다

운전군 율하협동농장 일꾼들

이 농사차비에서 앞서 나가고있다. 농장에서는 이미 물길가시기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드라프트트럭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도 미리 갖추어놓았다. 특히 질 좋은 거름이 많이 생산되어 올해농사성과를 담보해 주고있다. 이 성과는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올해농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해 앞을 내다보며 만발히 작전하고 실천해나가고있는 농장일꾼들의 사업과 기여를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꾼들은 매사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작업반들의 농사차비실태를 로한 농장관리원들의 생각은 있었다. 작업반에서 직접 승수에 대한 사양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 먹이와 온도가 보장대책을 잘 세우면 온도 등 거름생산량을 늘일 수 있는 방도가 나왔다.

농장일꾼들은 찾아낸 방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여왔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이 높았었다.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제2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혁신의 불길을 키워서

이런날 제6작업반 2분조에 내리건 농장일꾼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 애플로 감자를 심은 포전에서 뒤그루는 비의 수확고가 높았었다. 더우기 비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번드르르한 날씨조건에서도 애플로 감자에서 수확고와 수확률

## 정주시 일해협동농장에서

새해공동사설을 피륙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정주시 일해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한주일동안에 많은 량의 거름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농장일꾼들은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새해 첫 전투부터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농장에서는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모든 농장원들이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작업반에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앞선 경험을 받아들여 더욱 하였다.

농장의 어느 작업반에서나 거름생산전투로 들끓고 있다. 풀과 비질을 집진승우에서 밝혀내기 위한 사안이 농장의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 집진승우리바다를 쳐내어 퇴적장에 쌓아나가는 등 그치는 농장원들은 농사차비를 잘하여 올해에 기어올라오는 가을을 안아올 열의에 넘쳐있다.

거름생산에서는 제2, 6작업반의 농장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농장원들은 거름더미가 자 쌓여나가고 하면서 고리형

## 영농공정을 앞당기기까지

운전군 관해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운전군 관해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새해농사차비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킬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의 농사차비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다음날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농사차비를 앞질러가며 해야 불철에 나가서 영농공정을 앞당기고 긴장된 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때문이었다.

날마다 일꾼들이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일꾼들이 조지사업을 하고있던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다.

관리위원장의 이야기는 한해 농사를 다 지었다고 마음을 놓으려던 일꾼들의 심정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들은 신념을 바싹 조이고 작업반들에 내려갔다. 작업반초급일꾼들도 새해농사차비를 비롯없이 하기 위한 열의를 보이고있다.

일꾼들이 받들고 농장원들도 떨쳐나갔다. 여기저기서 혁신적인 인물이 제기되었다.

## 거름 생산을 위한 열의

순환생체계가 온이 나도록 하는 큰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고있다. 생산하는 데 힘을 넣고있다.

제2작업반원들은 이미 축산기계를 비롯하여 무려 놓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다. 제6작업반원들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실리적으로 만들어놓은 퇴적장에 거름더미를 높이 쌓고있다.

다른 작업반들의 농장원들도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거름생산에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인민생활상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할 열의에 넘쳐있는 농장원들은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농장일꾼들은 성과가 오를수록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농장원들을 이끌고있다. 그들은 집진승우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도록 대책을 세우고있다. 먹이보장을 비롯하여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진다 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거름생산량은 부쩍 오르고있다.

## 운전군 관해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운전군 관해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새해농사차비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

공공시설사업관행변革을 위한 투쟁으로 전진하라

세계공공시설에서 제시된 전후적과업을 피하는 심장마...

시대의 걸작, 명작들을 더 많이

문화성 일군들과 정무원들

해사업에 대담하고 통이 크...

은 조신미술가동맹 중앙위원...

남들이 못한다는것을 기어이...

작업장에 찾아가 넘겨주면서...



올해에 다시 한번 정공임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연한 전진을 일으키자!

진격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예술선전대들 경제선동 활발

전국도처에서 중앙과 지방의 예술선전대들이 대중의 심...

당외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은

선천군당위원회 직외강연장사 정일수동무

위대한 항쟁의 파도와 같이...

《혁신자들을 축하합니다!》

《혁신자들을 축하합니다!》

《혁신자들을 축하합니다!》...

총진군의 기상 약동하는 령성령기술

삼수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총진군의 기상이 약동하는...

얼마전 출근길에 서있다. 새...

한산의 나뭇를 활짝 펼치던...

풀잎이 행복하 나의 인생길...

삼수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총진군의 기상이 약동하는...

성실한 교육자부부...

자체의 힘으로 훌륭한 교육조건을...

평안남도 상업학교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합진료소에서...

공공시설을 높이 받들고...

공공시설을 높이 받들고...

매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매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매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매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매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매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민족의 래양

지금 남북겨레들의 마음과 마음은 우리 민족의 절절한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이 시각도 불면 불의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로 열리지 않고 있다.

백두의 단력과 의지, 탁월한 전략과 승고한 덕망으로 온 겨레를 손잡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걸음마다 첫부 시며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 남북겨레들은 휘황한 목표와 뚜렷한 설계도가 있으며 결사의 위인의 현명한 영도를 받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품고 있는 간절한 열망이다. 하지만 그것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국통일의 거창한 위업을 그 실현을 이끌어나갈 탁월한 위인을 모시고 그의 현명한 영도를 받을 때만이 빛나는 완성을 성취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통일운동의 아제와 오늘에 이어 패업을 내다보며 남북겨레가 새긴 진리이다.

하기에 지금 남북겨레들은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 통일위업 실현에 이끌려주며 그 길에서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고 계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충모의 정으로 가슴벅차고 있다.

엄바친 서울시 판악구에서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의 참가

하에 모임이 열렸다. 여기서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조국을 통일할 희망의 정도자는 김정일장군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좌절을 모르고 전진하고있는것은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민족대단결리념과 그 구현인 남북공동선언이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고 기때문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진실로 우리 민족의 통일태양이다.》

뒤이어 자리에서 일어난 인민의 한 제아인사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탁월한 사상리론으로 민족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고 높이 존송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 사상리론은 온 겨레에게 민족의 생명선인 자주의식을 키워 주는 활력소이고 민족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단결장이며 민족의 진로를 찬란히 밝혀 주는 휘황한 태양이다.》

민족자주분립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통일과 번영으로 이끌어가는 애국애족의 길임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참으로 그는 위대한 사상리론으로 통일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가슴속진정을 터놓는 그들의 열골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따르는 남북겨레들의 열화같은 호모심이 그대로 어려 있었다.

어제 그렇지 않았는가. 조국통일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의 로정은 그야말로 가장 승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만이 이어나갈 수 있는 헌신의 로정이다.

통일의 진로를 밝혀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도, 온 겨레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조국통일로작과 방언들도 그 줄이 끊이지 않는 애국의 열매를 맺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기어이 물려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애국애족의 승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하여 남북겨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반제가 넘도록 지속되어 불신과 대결의 정격은 기어이 허물어지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가 반드시 열리리라는 확신으로 가슴벅차고 있다.

자기의 글에 《김정일장군님 만을 믿고 살 때 우리의 승리가 있다.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통일조국의 새 아침은 밝아오야 할 것이다.》라고 쓴 대우의 한 통일운동가, 동료들에게 《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번영하는 자주강국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격조높이 이야기한 인민의 한 로동자, 친구들에게 《우리 민족은 김정일 구방위 원장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장군님의 밝

은 앞날과 장성변영할 통일조국을 보고있다.》라고 통일광주의 한 대학생...

조국통일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의 로정은 그야말로 가장 승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만이 이어나갈 수 있는 헌신의 로정이다.

통일의 진로를 밝혀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도, 온 겨레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조국통일로작과 방언들도 그 줄이 끊이지 않는 애국의 열매를 맺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기어이 물려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애국애족의 승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하여 남북겨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반제가 넘도록 지속되어 불신과 대결의 정격은 기어이 허물어지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가 반드시 열리리라는 확신으로 가슴벅차고 있다.

자기의 글에 《김정일장군님 만을 믿고 살 때 우리의 승리가 있다.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통일조국의 새 아침은 밝아오야 할 것이다.》라고 쓴 대우의 한 통일운동가, 동료들에게 《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번영하는 자주강국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격조높이 이야기한 인민의 한 로동자, 친구들에게 《우리 민족은 김정일 구방위 원장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장군님의 밝

어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앞당겨줄 자기의 굳센 신념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최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통일은 확정적이다.》 그는 투철한 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 애국애족리념의 위대한 체현자이시고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력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오시는 경애하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조국의 미래가 있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주통일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력사를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자재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여 통일영하는 자주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야 한다. 이날 민족모두가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받들고 힘차게 싸우나간다면 멀지 않아 민족자주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할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념원인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한다는 이런 굳은 신념과 의지를 안고 남북겨레들은 지금 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에 과감히 맞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 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애제에 전진하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밝히는 통일강성대국의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것을.

본사기자 허영민

남녘동포들을 생각하며

해방직후 어느해 봄날이었다. 이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 한 녀성의 집을 찾으셨다. 어머님께서 그 집 마당가에 이르시었을 때 그 녀성은 터밭에서 새파랗게 자라는 부추를 솟음질하고 있었다. 친한뎡뎡에도 자기 집에 김정숙어머님을 모시게 된 녀성은 손수치는 감각과 기쁨을 감지 못해 하며 어머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그의 인사를 받으시며 어머님께서는 사마를 잠깐 앉으셨었다가 녀성과 함께 부추를 솟기 위해 터밭으로 들어서시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터밭을 둘러보시며 녀성을 알뜰하게 잘 가꾸었다고, 부추밭에 들어서니 산에서 싸울 때 조국에 나와 지하공작을 하던 일이 생각났다고 추억 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어머님께서 잠시 말씀할 틈을 주시며 먼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우리는 아직 나라를 통일하지 못했다고, 일제가 꾸꾸러지니 이번에는 미제가 나타나 38°선 남쪽에서 주인공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군의 군화발에 짓밟혀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김정숙어머님의 진정에 크게 감동된 그들은 항일의 그날처럼 수렁만큼 만들어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머니를 우러러 한목숨 바쳐서라도 기어이 조국을 통일할 심혈을 맹세를 다지었다. 그 후 그들은 어머니께 한 맹세대로 조국통일의 길에 고귀한 생을 바쳤다.

본사기자 장운남

간곡한

주제 38 (1949)년 어느 봄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승고한 통일이수령의 뜻을 받들어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와 공초침과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여 손에 총을 들고 싸우던 새민족의 녀성들이 이날 김정숙어머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모란봉기슭에서 어머님께서 친히 차리신 음식들을 맛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이날 어머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녀성의 몸으로 총을 잡고 나선 동무들은 참으로 귀중한 동무들이라고, 자신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머리를 틀수 없었다.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던

어머님께서의 마음같아서는 자신께서도 동무들과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서 김정일장군님의 심혈을 덜어드리고 싶다고, 동무들이 자신의 마음까지 펼쳐서 장군님의 심혈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장서 싸워달라고 당부하시었다.

김정숙어머님의 진정에 크게 감동된 그들은 항일의 그날처럼 수렁만큼 만들어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머니를 우러러 한목숨 바쳐서라도 기어이 조국을 통일할 심혈을 맹세를 다지었다. 그 후 그들은 어머니께 한 맹세대로 조국통일의 길에 고귀한 생을 바쳤다.

본사기자 장운남

##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장

남조선의 각계층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에서 남조선의 조선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북남대화를 요구하는 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북남관계가 파탄되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당하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개관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긴급조치를 무력충동에 의한 최대피해자는 우리 민족이다.》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군사적대결로선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대화를 통한 조선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이 지금의 위기극중을 근본적으로 타개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당국은 《대체통일을 통해 긴장을 해소할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보수 <경민>이 등장하면서 북남관계에서 모든것이 뒤바뀌고 역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새해에는 온갖 노력을 다 모아서 민족의 밝은 앞날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층이 적극 펼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대표들도 진보연영의 포괄적이거나 강력한 편제를 실현하여 2011년을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것을 피력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참여연대도 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대화에 하루빨리 나설것을 요구하여 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정부부의 새해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체제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면서 《평화통일에 정면으로 도

전하는 이같은 계획은 그자체가 매우 위험한것이며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대화를 제의한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일부 당국자들이 북의 대화제의를 외면하는것은 지극히 잘못된것이며 지금 북남간에 절실히 필요한것은 시급히 대화를 실현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강경외교적인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통일과 화해협력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갈등과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통일부의 업무계획을 전면제거하고 북과의 대화에 나설것을 제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정당하며 누구도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리성호

##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7일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대화의 길을 열어줄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5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는 우리 민족구기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훌륭한 방도가 밝혀져있다고 하면서 영이 적극 지지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발전과 관련된 긍정적이거나 관련 지체없이 받아들일 대신 서로 만나 불지도 않고 그 무슨 《진정성》 부러 운운하는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동족끼리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단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자들끼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쟁법과 사대주의자로부터 달리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의 제의를 두고 정당, 사회단체가 적극 호응해서라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

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추진위원회 유림지역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

어 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는 우리 민족구기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훌륭한 방도가 밝혀져있다고 하면서 영이 적극 지지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발전과 관련된 긍정적이거나 관련 지체없이 받아들일 대신 서로 만나 불지도 않고 그 무슨 《진정성》 부러 운운하는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동족끼리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단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자들끼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쟁법과 사대주의자로부터 달리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의 제의를 두고 정당, 사회단체가 적극 호응해서라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임장이 6일 《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자》고 통일과 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자》라는 제목의 담

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 제시된 중대제안은 열렬한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일관되고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와 지향,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하고 애국적인 발기라고 하면서 영이 전적으로 지지환영한다고 밝혔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이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연합성명에 적극 호응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단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자들끼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쟁법과 사대주의자로부터 달리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담화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선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결정적구실을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밝혔다.

※

강수련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새해공동사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여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강성변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다대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지난 한해를 더듬어 불수록 삼부득위, 눈보라강행군길을 걸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눈에 삼삼하여 가슴뜨거워진다고 지적하였다.

제일동포녀성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평생소원하신 리성이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에 의해 현실로 꽃피어 그날을 향해 전진하는 결심한다라는 철칙같은 신념을 안고 대고조의 전진군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에서 본 참된 용기를 얻고있다고 담화는 밝혔다.

특히 우리 민족구기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며 대외에 조국통일과 평화번영과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동포녀성들로 하여금 믿되고 부강번영할 조국의 패일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열의에 충만되게 한다고 담화는 언급하였다. 담화는 올해를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의 골짜기를 열어나가는 판적전성 해로 되게 하기 위해 재일동맹사에서 전한을 일으킬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여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구실을 열어나가지는 절절한 호소를 담겨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서 조성된 현안들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데 대한 공화국의 중대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을 밝혔다.

북남사이의 대화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대화로 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남조선 《정부》가 공화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 미 핵 항공모함전단 남조선에 입항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11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또한 항공모함전단에 소속된 순양함 《방크힐》호는 부산에, 순양함 《그리틀리》호와 《스북메일》호는 경상남도 진해항에 기어어들었다.

《칼빈슨》호 항공모함전단은 초대형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대신하여 현재 미제 7함대에 배속되어있다.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서 조성된 엄중된 위기를 대화와 협상

으로 타개하려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이 핵항공모함전단을 남조선에 들이민것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저들의 흉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미정렬형성을 평화회정으로 바꾸어놓으려 하는 것만으로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 한다.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들은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들이 계속되던 조선반도의 평화는 결코 보장될수 없다. 대화와 협정의 분위기를 해치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들은 사주전 중지되어야 한다. 력사적교훈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들이 중지되지 않고서는 전쟁위험을 가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으며 조국통일운동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평화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북과 남의 우리 제기하고 서로 자유로이 오가며 신뢰를 쌓고 협력을 활성화하며 단합하자고 해도 전쟁위험은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가 못하는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투쟁에 달려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구기 힘을 합쳐 전쟁위험을 시급히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 바란다.

본사기자 송영석

미 핵 항공모함전단 남조선에 입항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11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또한 항공모함전단에 소속된 순양함 《방크힐》호는 부산에, 순양함 《그리틀리》호와 《스북메일》호는 경상남도 진해항에 기어어들었다.

《칼빈슨》호 항공모함전단은 초대형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대신하여 현재 미제 7함대에 배속되어있다.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서 조성된 엄중된 위기를 대화와 협상

## 남조선의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규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4월혁명회를 비롯한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강요하려는 현 당국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단체들은 당국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제침야망실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더욱 침에하게 만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우리 민족에게 친인공노할 반인륜적만행을 저지른 일본과는 결탁에 대해 생각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제침야망실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더욱 침에하게 만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우리 민족에게 친인공노할 반인륜적만행을 저지른 일본과는 결탁에 대해 생각

이기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없다.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야말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를 전환할수 있다. 력사적교훈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들이 중지되지 않고서는 전쟁위험을 가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으며 조국통일운동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평화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북과 남의 우리 제기하고 서로 자유로이 오가며 신뢰를 쌓고 협력을 활성화하며 단합하자고 해도 전쟁위험은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가 못하는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투쟁에 달려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구기 힘을 합쳐 전쟁위험을 시급히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 바란다.

본사기자 송영석

## 북남관계개선은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와 더불어 이 땅에 울려 퍼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우리 민족구기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구실을 열어나가기 위한 길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단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자들끼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쟁법과 사대주의자로부터 달리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의 제의를 두고 정당, 사회단체가 적극 호응해서라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임장이 6일 《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자》고 통일과 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자》라는 제목의 담

## 규탄

할수 없다고 밝혔다.

머우기 지금은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를 풀어야 할 때라고 하면서 단체들은 각계 반대하여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 심각한 구제역실래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인권의 계양구와 남조선강원도의 강릉, 대관령, 경기도의 화성, 양평, 평택, 용인, 경상북도의 봉화, 충청북도의 청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구제역이 포다시 발생하였다. 구제역은 지난해 11월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지 40여일만에 6개 도, 시의 108곳으로 확대되었으며 매몰처리된 집정수는 128만마리를 넘어섰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 축산업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

조류독감 급속히 확대

남조선에서 조류독감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7일 남조선의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류독감은 9일 하루동안만도 전남도도의 4곳에서 발생하였으며 그외에 함평, 라주 그리고 충청남도 아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퍼트린 속도로 퍼지고있다.

지난해 12월말 전라북도 익산과 충청남도 천안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으며 10여일만에 4만마리를 달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인민들의 4대강정비공사지주

시급히 제거되어야 할 전쟁위험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기운은 높지만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침에하다. 북남관계가 일찌기 없었던 최악의 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이 조성된것은 이 땅을 생판전으로 삼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는 사태이다. 현실은 북과 남이 무겁게 떠도는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시급히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평화애호의지의 뚜렷한 표현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도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와 호소를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중대조치로 지지환영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이에 적극 호응해서나기를 기대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미국에 의해 전쟁의 재난을 강요당할 때로부터 반제가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전

본사기자 김홍미

# 불순한 기도가 숨겨진 《4자안보대화》 타령

미국의 대조선압박책동이 더욱 로골적으로 강행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안보보장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과 미국, 오스트랄리아, 남조선이 참가하는 《4자안보대화》를 거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올해 봄에라도 외부 및 방위담당 국장급회담을 진행하며 그것을 정례화할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일본, 미국, 오스트랄리아가 참가하는 《3자안보대화》는 진행되어왔지만 여기에 남조선이 참가한 것은 없었다. 일본은 《4자안보대화》를 거리를 구축이 남조선합선침몰모략과 연평도포격사건으로 전례없이 긴장해 있는 조선반도정세에 대처하며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니아 같이 일본이 제창하는 새로운 《4자안보대화》타령의 타령에는 지역의 평화와 안보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4자가 집단적으로 우리 나라와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포위전제하기 위한 범죄적인 모의만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일본적으로 안보대화는 나라사회의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개별적인 나라 또는 지역적범위에서 평화와 안전, 안정보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추동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엔 일본이 들고나온 《4자안보대화》를 거리는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참가하는것으로 되고있다. 일본과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해 적의를 품고 대조선적대정책을 악랄하게 강행하여온 나라들이다.

일본은 오래전에 《달리는 황소작전》, 《날아가는 폭격전》, 《세계

화살작전》 등 조선제체계획을 짜놓고 무력증강을 발광적으로 다그쳐왔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주변사태대처》의 미명하에 각종 전쟁법들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해외진출과 군사작전의 길을 터놓았으며 오늘에 와서는 전후지역에서 《자위대》원들의 무기사용을 허용하는데가 급급한 것인행하며 그것을 정례화할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집어삼키고 그를 발원으로 하여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는 한편 총격전인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조작하는 등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위기사태에 몰아넣고 있다.

일본정부가 들고나오는 《4자안보대화》는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자들의 지지협력으로 조선제체를 위한 군사행동에 직접 뛰어들기 위해 고안한 각본이다. 일본은 《4자안보대화》를 거리를 구축의 필요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이 우리 나라와 중국을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빼앗기 주장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군주주의적사상, 지배주의야망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는 일본에 그 어떤 위협을 가한적이 없으며 지금도 같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하고있다. 우리

정발발의 긴박감을 조성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과 일본 등 침략세력들이다. 그들은 조선반도에 완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경계로 몰아가곤 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놀았는가 하는것은 지난 수십년동안에 걸친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책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제체를 위한 모든 군사적준비를 갖추어놓고있다. 바로 제체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일본이 고안해낸것중의 하나가 《4자안보대화》이다. 일본은 《4자안보대화》를 거리를 구축하게 되면 조선반도문제에 자연스럽게 개입해나설수 있고 특히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군사행동의 조건을 마련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것으로 타산하고있다. 즉 일본은 남조선까지 참가하는 《4자안보대화》마당에 마련된 우리를 반대하는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다고 간주하고있으며 그 리행을 위한 군사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는데 일본은 《4자안보대화》를 거리를 구축하는 경우 저들이 일장에 나설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저들의 제체행위에 《안보보장》이라는 외의를 띄워 정당화해나갈것은 물론 3자의 지지협력밑에 제체야망을 손쉽게 이룰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정부가 들고나오는 《4자안보대화》를 거리를 구축하여서 새로운 전쟁정책을 수립하려는 극히 모험적이고도 발칙한 계획이다.

일본은 《4자안보대화》를 가동시키는것으로써 제체의 거지장스러운 제동장치를 풀고 군주주의적정미체에 더욱 속도를 가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추구하고있다. 오늘 일본에 있어서 전쟁무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금지

를 규제한 헌법조항은 명색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일본반동들이 전쟁경계를 규제한 헌법조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쟁허용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는것은 저를 마음대로 할 문제가 아니다. 전쟁국인 일본은 국제사회의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날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나라의 군사화, 파쇼화책동을 강행하면서 제체의 길로 출발을 촉진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은 그들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고 울려나오고있다. 주변나라들이 일본의 군주주의적책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를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반동들은 교활하게도 《4자안보대화》를 거리를 구축하여 《평화보장》의 외의를 쓰고 군사행동을 벌리면 법적구속도 받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반발도 덜 살수 있을것으로 타산하고있다.

일본의 《4자안보대화》를 거리를 구축하는 날로 더욱 현실화되어가고있는 군주주의세력의 모험적인 제체책동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안보》의 간판을 들고 전쟁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로 하여 지역정세가 위태로워지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자주권과 안전, 리익이 심히 위협당하고있다.

지난날의 수직스러운 폐망의 교훈을 망각하고 제체의 길로 내딛는 일본군주주의자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평화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민중들의 지향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이다. 시대의 흐름을 의문하고 전쟁을 추구하는자들에게는 역사의 응당한 징벌이 가해지 마라이다.

일본이 제체의 길로 계속 줄달음치면 종당에는 파멸의 함정에 곤두박치고말 것이다. 백 문 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를

##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이 발표된것과 관련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를 8일과 9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여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며 1월말 또는 2월 상순에 개성에서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재개할것을 제의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당국회담의 급과 장소, 시일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할수 있으며 회담대구는 중진대로 하던가 새로 구성할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대화의 문을 열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폐쇄된 판문점남측적십자회관을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협력협약의

무소 동결을 해제할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조선측 판문점적십자회담대표들이 곧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될것이며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협약의 사무소에도 조선측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상주시킬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다른 그 누구도 풀이줄수 없으며 당사자인 조선민족끼리 마주앉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에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한반도 북남사이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지 못한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관할 일이다.

북과 남이 마주앉아 손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북남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을것이다.

만나보지도 않고 《진정성》을 운운하며 여러가지 조건부 앞세우는것자체가 진정성이 있는 태도라고 말하였다.

대변인은 계속해서 북남관계

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조선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고 하면서 조선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의의를 의심할것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의구심을 버려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조선의 대화제안과 선의의 조치에 적극 화답해나와야 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인민일보》, 《메이징일보》, 《해방군보》,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 이란의 신문들인 《카이한 인터내셔널》, 《이란 뉴스》, 《테헤란 타임스》와 프랑스TV방송, 카타르의 알 제제라 위성TV방송, 미국의 AP통신, VOA방송, CNN 방송, 영국의 BBC방송,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NHK 방송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 조선의 웅대한 목표들은 성과적으로 수행될것이다

## 스위스, 도이칠란드단체 성명 발표

당보, 군보, 청년보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하여 스위스와 도이칠란드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재사우연공조는 2일 공동성명에서 새해공동사설이 발행된지나해의 성과와 올해의 과업들에 대하여 열거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공동사설에 제시된 웅대한 목표들이 성과적으로 완수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

었다.

도이칠란드 프랑켄주제사상 연구소조는 4일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는 때에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며 평화의 위기를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며 북남대화 와 협력협력을 적극 추진시키나갈것을 호소한 조선의 새해공동사설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이 일어나는것을 누구도 원치 않지만 미국은 오히려군사기지를 계속 유지하고 조선해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이는 정세를 계단식으로 악화시켰다고 하면서 지난해 남조선당국의 정책은 미국의 제국주의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반공화국정책이였으며 민족의 리익을 팔아 미국의 전략적도입현에 편승해온 반민족적정책이였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 훌륭하게 실시되고있는 인민적보건의책

## 외국인들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평양산원을 참관하고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캄보디아조선친선의원대표단 단장 싸우 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양산원에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여있다. 그이께서는 이곳에 현대적인 의료설비와 기구들, 효능높은 보약제와 영양식료품들을 보내주셨다.

조선녀성들은 이곳에서 무료로 의료상혜를 받고있다. 인민적보건의책이 훌륭하게 실시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중국정부위생대표단 단장 진 축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평양산원을 돌아보며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건사업장소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셨는지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생동들이들을 위해 비행기를 날게 하시고 그들에게 급반지와 온장도를 비롯한 선물들을 보내주신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스위스녀성대표단 단장 하그 카르멘은 평양산원을 참관하고 경감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에

서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그 무엇도 이르지 않았고 있다. 우양자제 일대일 산원에서 유능한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산모들과 애가들을 의료상향조를 돌리셨다고 말하였다.

태양절기념 물품대표단 단장 드. 미즈가는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도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 조선인민에게 더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 미국의 와해책동을 짓부실것을 호소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가 9일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와해책동을 짓부실것을 전제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미국과 국제 구유익반동들이 지난 10년동안 베네수엘라혁명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갖은 책동을 다해왔으며 지금도 사회질본정의를 옹호하기 위한 계획에 매여달리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볼리바르혁명이 양키식민지시대의 노예사상을 끌어내렸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존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을 계속해서 미제국주주의와 그 주구들의 위협책동에 맞서 각성을 높여 투쟁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탈인민은 앞으로 적들의 그 어떤 압력책동도 짓부시고 발전과 번영의 길을 따라 전진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고속철도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구간의 고속철도들이 건설되어 운영되고있는데 그 길이는 8358km에 달한다.

나라에서는 2015년까지 고속철도 총길이를 1만 6000km이상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공업생산 증가

말레이시아에서 지난해 11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5.1% 증가되었다.

이 기간 특히 제조업부문에 생산이 많이 늘었다.

실업률 감소

스리랑카에서 지난해 실업률이 4.5%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1.2% 감소된것으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 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협조

이란과 수리아가 9일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7일 중국과 모리셔스는 경제 및 무역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6일 에리트레아와 마르코는 정치적 및 전략적대화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할데 대해 광범각에서 조인하였다.

세계적으로 주요식료품가격이 급격히 뛰어들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에 빵, 쌀, 우유, 사탕, 식물성기름 등 주요식료품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그 원인의 하나는 큰물과 무더위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하여 알곡수확량이 줄어들고 많은 집짐승들이 죽어내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이탈인민은 앞으로 적들의 그 어떤 압력책동도 짓부시고 발전과 번영의 길을 따라 전진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아프가니스탄에서 녹아나는 미군

아프가니스탄의 헬만드주에서 7일 《반테로전》에 돌아치던 미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한편 6일 에리트레아와 마르코는 정치적 및 전략적대화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할데 대해 광범각에서 조인하였다.

세계적으로 주요식료품가격이 급격히 뛰어들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에 빵, 쌀, 우유, 사탕, 식물성기름 등 주요식료품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그 원인의 하나는 큰물과 무더위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하여 알곡수확량이 줄어들고 많은 집짐승들이 죽어내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이탈인민은 앞으로 적들의 그 어떤 압력책동도 짓부시고 발전과 번영의 길을 따라 전진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탈인민은 앞으로 적들의 그 어떤 압력책동도 짓부시고 발전과 번영의 길을 따라 전진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핵적행위

세계에 들어와서도 말쑥한 현대판핵적행위가 계속되고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난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때 나온 《해적》이라는 말은 21세기 첫 10년대가 지난 오늘까지도 그대로 쓰이고있다.

현대판핵적행위는 지난날의 해적처럼 배에 핵폭탄을 표시하는 해물을 그린 기발을 걸고 돌아치던 낡은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수단과 무장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여 보다 은밀하고 기동적으로 핵적행위를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흔히 위성전화와 전지구위지측정장치 등 현대적인 통신기재와 함께 지동무기와 로켓발사기 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술적으로는 《자보선》 방식(큰 배에 작은 배를 감추어 두게 만든 배. 큰 배에 핵폭탄을 감추고 공격목표로 되는 배의 선장에 가발을 다음 큰 배는 폭발시키고 그것을 타고갔던 사람들은 작은 배를 리용하여 되돌아오는 방법)을 리용하여 배파치행동시의 신속성과 후방보급을 동시에 담보

하였다.

한편 6일 에리트레아와 마르코는 정치적 및 전략적대화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할데 대해 광범각에서 조인하였다.

세계적으로 주요식료품가격이 급격히 뛰어들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에 빵, 쌀, 우유, 사탕, 식물성기름 등 주요식료품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그 원인의 하나는 큰물과 무더위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하여 알곡수확량이 줄어들고 많은 집짐승들이 죽어내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이탈인민은 앞으로 적들의 그 어떤 압력책동도 짓부시고 발전과 번영의 길을 따라 전진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6일 미로통신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일까지의 지난날 취업동향에 대해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40만 9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전 주에 비해 1만 8000명 증가된것이다.

또한 이따리야에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의연 심각한 사회적문제 제기되고있다.

7일 이 나라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전년 대비 청년실업률이 그 전

# 반미, 반이스라엘기운 고조

튀르키예인들속에서 다른 나라들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지고있다.

5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 무더기 비 피해

브라질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계속 내리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과 흩사태로 6일현재 35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3만여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미나스제라이스주인데 이곳에서는 16

# 부당한 규제정책

부당한 규제를 풀어 제제로 뒤어 하거나 과하게 규제하지 말고 합계 제제동맹을 그 수단으로 하거나 리용하지 말고. 특히 미국의 행정조직수립을 위해 조선적위험공급에 대항해 제제동맹을 마구 휘둘러왔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만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제제는 60여차례나 된다고 한다.

한때 미국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전파, 테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침》조치로서 20개가 넘는 제제법이 있었으며 거기에 걸러는 대상은 수십개 나라나 된다. 미국의 제제정책의 주된 내용은 레오 없이 혁명적원칙, 반제국주의적행위를 확고히 고수하고있는 나라들에 돌려지고있다.

미국이 강행하고있는 제제정책의 밑바탕에는 초대국주의적외교관념과 힘에 대한 과신이 놓여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파대당상적인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제정책은 국제관계에서 공인된 자주, 평등의 원칙에 완전히 배치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같이 국제사회의 동등한 시민들이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들에